

# 獨行篇에 나타난 鄙薄貪懦者에 대한 考察

尹德泳<sup>\*</sup> 高炳熙<sup>\*</sup>

## 요 약

東武의 著書에는 東醫壽世保元과 格致藁가 있다. 格致藁중 獨行篇은 知人에 대한 東武의 哲學이 담겨있다. 東武의 四象醫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獨行篇의 鄙薄貪懦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獨行篇은 인간의 본성인 仁義禮智를 仁者, 義者, 禮者, 智者로 규정하고, 이의 속성을 忠, 信, 立, 勇이라 하고 이 개념을 忠信廉解者로 하여 鄙薄貪懦者와 서로 상대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2. 孟子의 四夫之心과 鄙薄貪懦者의 관계는 鄙夫, 薄夫, 頑夫, 懦夫를 仁義禮智者의 속성과 연계해서 생각하고 유추를 해 볼 수 있고 鄙薄貪懦者가 仁者, 禮者, 義者, 智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柳下惠, 伯夷의 風度를 들으면 忠信廉解者의 행동에 가까워질 수 있다.

3. 鄙薄貪懦者之心을 大學의 四夫之心을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獨行篇의 鄙薄貪懦者之心과 儒略의 四夫之心을 생각해보면 어떤 일정한 규율이 없는데 이는 心慾을 추정하여 정하기는 어렵고 도식화하여 맞추어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鄙薄貪懦者와 仁義禮智의 관계는 獨行篇, 四端論, 儒略의 仁義禮智와 鄙薄貪懦者와의 관계가 서로 틀리는데 仁義禮智 四端을 人間의 本性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屬性이 있을 수 있고 시기와 환경에 따라 四端을 적용시키는 것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 I. 緒論

東武公의 저서는 東醫壽世保元과 格致彙가 있다. 格致彙의 獨行篇은 1882년(任午年)에 가장 먼저 저술하였다. 獨行篇은 東武公이 평생 추구해온 哲學的 과제인 知인과 正己 가운데에 知인의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sup>1)</sup>. 獨行篇은 獨行的 정의, 仁義禮智에 대한 설명, 鄙薄貪儒에 대한 설명, 君子의 獨行과 處世, 四端과 臟腑와의 연계, 君子의 慎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鄙薄貪儒者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2)</sup>.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 人稟臟理의 有四不同으로 太少陰陽人으로 나뉘고 人趨心慾의 有四不同으로 鄙薄貪儒人으로 나뉜다고 설정하고 鄙薄貪儒人의 개념은 仁義禮智 四端을 행하지 않는 放縱, 偷逸, 飾私, 極慾하는 者라고 하였다<sup>3)</sup>. 鄙薄貪儒者는 獨行篇에 心慾차원으로 설명 되어 있다.

獨行은 獨行을 하여 不動心에 이르기 위함이고 獨行을 행하는 방법론을 살펴보면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好而知其惡 則中立而不倚, 惡而知其美 則和而不流<sup>4)</sup>하는 것과 두번째는 知人誠僞 則不惑하고 不惑 則正心하고 正心 則不動心<sup>5)</sup>하는 방법이 있다. 己誠未盡 則人僞難悉하고 己僞猶存 則人誠亦疑<sup>6)</sup>라고 하여 먼저 자기의 誠을 다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우선 조건으로 삼았다. 惟天下에 至誠不僞 能盡其性者 然後에 可以悉人之誠 僞라 하여 至誠으로 인간의 본성을 다하는 측면의 仁義禮智 四端과 知人誠僞 則不惑하는 측면에서 人僞의 人趨心慾인 네가지 鄙薄貪儒人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 仁義禮智 四端의 속성을 하나의 실체인 仁者, 義者, 禮者, 智者라고 하여 東武公의 시각으로 概念을 정리하였다. 이는 四端이라고 하는 仁義禮智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仁義禮智

와 鄙薄貪儒者를 相對的인 것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다. 仁義禮智者를 禮者 顯允, 仁者 樂易, 義者, 整齊, 智者 闊達이라고 규정하고 鄙薄貪儒者를 鄙者 陋焚, 薄者 狡回, 貪者 驕橫, 儒者 詐僞라고 규정하였다. 이 두가지의 概念을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하고 鄙薄貪儒者를 정형화해 나가야 한다. 이에 獨行篇에 나타난 心慾차원의 鄙薄貪儒者의 개념정리를 하여보겠다.

## II. 本論

### 1. 仁義禮智者와 鄙薄貪儒者의 개념 설정

獨行篇은 人間의 本性인 仁義禮智 四端의 속성을 人間에 부합시켜 禮者, 仁者, 義者, 智者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하였고 人趨心慾인 鄙薄貪儒人을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다시 설정 하였다.

辭讓之心은 禮之端也라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本性的 四端으로서 해석을 하는게 아니고 禮者는 밝고 마땅함(顯允)과 꾀(有謀)와 충성함(有忠)이라 하고 仁者, 義者, 智者도 마찬가지로 仁者는 즐겁고 편하게함(樂易)과 포용함(有容)과 믿음(有信)이라 하고 義者는 정돈하여 가지런함(整齊)과 능함(有能)과 마땅함을 세움(有立)이라 하고 智者는 마음이 넓고 작은 일에 개의하지 않음(闊達)과 재주(有才)와 용기(有勇)로 규정되었다.

鄙者는 더럽고 탐하며(陋焚) 忠者와 公器를 닦고 薄者는 교활하고 어기며(狡回) 信者와 時世를 닦고 貪者는 교만하고 거스르며(驕橫) 廉者와 地局을 닦고 儒者는 속이고 거짓(詐僞)을 하며 解者와 處勢를 닦는다라고 하였다.

禮者 仁者 義者 智者의 속성인 忠, 信, 立, 勇과 鄙者, 薄者, 貪者, 儒者의 與忠者 爭公器, 與信者 爭時世, 與廉者 爭地局, 與解者 爭處勢와의 관계로

볼 때 서로 상대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禮者 顯允 有謀 謀者 有忠↔鄙者 陋蕘 與忠者 爭公器  
仁者 樂易 有容 容者 有信↔薄者 狡回 與信者 爭時世  
義者 整齊 有能 能者 有立↔貪者 驕橫 與廉者 爭地局  
智者 闊達 有才 才者 有勇↔懦者 詐僞 與解者 爭處勢

公器, 時世, 地局, 處勢의 의미를 알아보면 공器는 무리가 모여 사람들이安危를 의논하여 政令이 나오니 富貴가 여기에서 나온다<sup>7)</sup> 하고 富貴는 公的인 것이니 忠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時世는 一世의 백성이 각자 올바르게 닦고 각자 交遊하여 黨與가 점차 이루어지니<sup>8)</sup> 黨與는 交遊하는 것이니 堯桀이 나올 수 있고 地局은 생산하고 일하는 데에는 清廉한 者와 貪者가 나오고 백성이 財力을 쌓을 수 있으니<sup>9)</sup> 資局은 私的으로 운영하니 廉貪者가 나오고 處勢는 사람들의 財力이 같지 않고 賢愚가 다르니 貴賤者와 智愚者로 나뉘어 地位가 나오니<sup>10)</sup> 地位는 協同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賢不肖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공器는 정치적인 면, 時世는 사회적인 면, 地局은 경제적인 면, 處勢는 문화적인(賢 愚 貴 賤)면으로 나뉘어 주로 말하고 있다.

忠信廉解者와 鄙薄貪懦者의 서로 대립하는 행동을 보면 忠者는 庶務를 힘쓰고 鄙者는 간사한 무리를 暗約하여 公器를 훔치고 信者는 內比를 가까이 궁핍히 하고 薄者는 멀리 外黨을 불러 人衆을 기울어지게 하고 廉者는 風俗을 단아하게 하고 貪者는 猾流를 급히 맺어 地局을 오로지 하고 解者는 몸이 먼저 勇敢하고 懦者는 多衆을 게으르고 속여 位權에 근거한다<sup>11)</sup>.

## 2. 孟子의 四夫之心과 鄙薄貪懦者

孟子는 柳下惠의 풍도를 들은 者들은 鄙夫가 너그러워지며 薄夫가 인심이 후해지고 伯夷의 풍

도를 들은 者들은 頑夫가 청렴해지고 懦夫가立志를 갖게 된다고 하였으니 鄙夫, 薄夫, 頑夫, 懦夫를 仁義禮智者의 속성과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柳下惠는 더러운 군주를 섬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작은 벼슬을 사양하지 않으며 나아가면 어짊을 숨기지 아니하여 반드시 그 도리대로 하는 것은<sup>12)</sup> 禮者의 마땅함(顯允)과 피(有謀)와 충성(有忠)하는 속성과 忠者의 행동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고 鄙者는 忠者와 公器를 다룬다고 하였으니 柳下惠의 風度를 들은 者들은 鄙夫가 너그러워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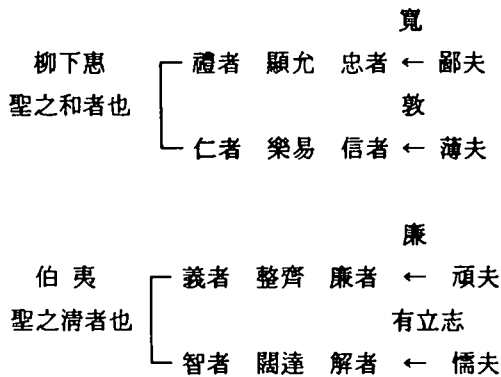
柳下惠는 벼슬길에서 버림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곤궁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으며 향인들과 더불어 처하되 유유하게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은 仁者의 즐겁고 편하게 하는 것(樂易)과 포용(有容)하는 속성과 信者의 행동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고 薄者는 信者와 時世를 다룬다고 하였으니 柳下惠의 풍도를 들은 者들은 薄夫가 인심이 후해진다고 할 수 있다.

伯夷는 눈으로는 나쁜 빛을 보지 아니하며,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섬길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아니하며,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아니하여,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하면 물러가서, 나쁜 정사가 나오는 곳과 나쁜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차마 거처하지 못하는 것은<sup>13)</sup> 義者의 정돈하여 가지런함(整齊)과 마땅함을 세우는(有立) 속성과 廉者의 행동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고 貪者는 廉者와 地局을 다룬다고 하였으니 伯夷의 풍도를 들은 者들은 頑夫가 청렴해진다고 할 수 있다.

伯夷는 紂의 때를 당하여 복해의 가에 거처하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智者는 작은 일에 개의하지 않는(闊達) 자기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것과 재주(有才)와 용기(有勇)의 속성과 解者의 행동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고 儒者는 解者和 處勢를 다룬다고 하였으니 伯夷의 풍도를 들은 者들은 儒夫가 立志를 갖게 된다.

이는 鄙薄貪儒者가 仁者, 禮者, 義者, 智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柳下惠, 伯夷의 風度를 들으면 忠信廉解者의 행동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孟자의 四夫之心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 3. 鄙者, 薄者, 貪者, 儒者の 속성

#### (1) 鄙薄貪儒者에 대한 설명

鄙者는 더럽고 탐하며(陋婪) 항상 權勢를 얻고 싶어하고<sup>14)</sup> 마음을 공손하게 하지 않고<sup>15)</sup> 더붙어 도울 수 없고<sup>16)</sup> 매번 다른 사람을 속이고<sup>17)</sup> 무리의 힘을 믿고<sup>18)</sup> 거짓으로 忠厚한체 하고<sup>19)</sup> 반드시 주장하는 것을 도모하려 하고<sup>20)</sup> 功勞를 수고로이 하지 않는다<sup>21)</sup>. 또 鄙者는 耿介者를 해치고<sup>22)</sup> 懈怠者를 愚弄하고<sup>23)</sup> 합하여 다른 사람 밑에 따르고<sup>24)</sup> 능히 富貴者를 속이고<sup>25)</sup> 資業을 버리고 다른 巨室을 도모한다<sup>26)</sup>.

薄者는 교활하고 어기며(狡回) 항상 名譽를 얻고 싶어하고 집안을 돌보지 않으며 더붙어 맺을 수 없고 매번 다른 사람의 위에 있을려고 하고 걸

모습만을 믿고 거짓으로 단아하고 겸손한 체하고 반드시 화려하고 사치하려 하고 眞實을 수고로이 아니한다. 또 薄者는 惠愛者를 해치고 끈고 믿음이 있는 者를 愚弄하고 밖에 있는 者와 결탁하려 하고 능히 英雄을 속이고 同室을 속이고 또 다른 同室을 속인다.

貪者는 교만하고 거스르며(驕橫) 항상 貨財를 얻고 싶어하고 일을 공경하지 않으며 더불어 보전할 수 없고 매번 다른 사람을 합할려고 하고 자기의 수단을 믿고 거짓으로 준수하고 착한 선비인체 하고 强盛하기를 도모하고 勤儉을 수고로이 하지 않는다. 또 貪者는 直義者를 해치고 간사하고 속이는 者를 愚弄하고 朋黨을 이루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고 능히 어리석은 者를 속이고 巨室을 어지럽게하고 다른 資業을 못하게 한다.

儒者는 속이고 거짓을 하고(詐僞) 항상 地位를 얻고 싶어하고 몸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더불어 할 수 없고 매번 다른 사람을 부릴려고만 하고 자기의 舞智를 믿고 거짓으로 능하고 약은 체 하고 위엄있고 중후한 것을 도모하고 닦고 바르게 하는 것을 수고로이 하지 않는다. 또 儒者는 行能者를 해치고 부지런하고 돈독한 者를 愚弄하고 안에 있는 者를 화합하여 함께 하려고 하고 능히 貧賤者를 속이고 民力을 쉬게하고 또 다른 民力을 쉬게한다. 위의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보면 다음 Page의 도표와 같다.

#### (2) 鄙薄貪儒者の 거짓된 行動의 속성과 諛辭, 邪辭, 淫辭, 遁辭.

鄙者가 바른 행동(匡直)을 한다는 것은 진실로 바른 행동을 하는게 아니고 그 계획이 公器를 얻어서 富貴를 누리는데 있고<sup>27)</sup>, 耿介者를 기뻐하는 것은 진실로 기뻐하는게 아니고 점점 오래되면 거만한 마음이(慢心) 생긴다<sup>28)</sup>.

鄙者	薄者	貪者	懦者
恒欲權勢	恒欲名譽	恒欲貨財	恒欲地位
不恭其心	不愛其家	不敬其業	不勤其身
不可與佑	不可與結	不可與保	不可與爲
每每誣人	每每上人	每每并人	每每役人
自恃衆力	自恃儀表	自恃手段	自恃舞智
假樣忠厚	假樣雅謙	假樣俊彦	假樣黠能
必圖主張	必圖華侈	必圖強盛	必圖威重
不屑功勞	不屑眞實	不屑勤儉	不屑修勅
陰賊耿介者	陰賊惠愛者	陰賊直義者	陰賊行能者
愚弄懶怠者	愚弄貞諒者	愚弄奸譎者	愚弄勤篤者
合從人下者	締結在外者	朋黨人上者	和同在內者
能瞞富貴者	能詐英雄者	能誣庸懦者	能詒貧賤者
棄其資業 圖他巨室	欺其同室 又欺他同室	眩其巨室 陷他資業	罷其民力 又罷他民力

薄者が 和議을 행한다는 것은 진실로 和議을 행하는게 아니고 그 계책이 時世를 거두어 단아한 명망(雅望)을 얻는데에 있고, 恩信者를 공경하는 것은 진실로 공경하는게 아니고 점점 오래되면 업신여기는 마음(侮心)이 생긴다.

貪者が 恩惠를 행한다는 것은 진실로 恩惠를 행하는게 아니고 그 계책이 地方을 마음대로 하여 強盛함에 의지하고자 하고, 또 貪者의 忠義者를 공홀히 하는 것은 진실로 공홀하는게 아니고 점점 오래되면 해치는 마음(賊心)이 생긴다.

懦者が 公正함을 행하는 것은 진실로 公正을 행하는게 아니고 그 계책이 處勢를 주관하여 威重함에 임하고자 하고, 賢能者를 아끼는 것으로 아끼는 것이 아니고 점점 오래되면 질투의 마음(妬心)이 생긴다.

또 孟子의 諛辭 淫辭 邪辭 遁辭<sup>29)</sup>를 鄙薄貪懦者의 하나의 속성인 거짓으로 행하는 행동에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鄙者의 諛辭는 거짓으로 相成을 더불어하고 薄者의 邪辭는 거짓으로 相依을 더불어하고 貪者의 淫辭는 거짓으로 청렴함을 행하는 것이고 懦者의 遁辭는 거짓으로 열어 깨우치는 것이다<sup>30)</sup>.

### (3) 鄙薄貪懦者의 不肖, 下愚

野에 鄙者와 더불어 相成 하지 못하는데<sup>31)</sup> 鄙者의 不肖는 一身이 원래 資身의 策이 없는 즉 相成하려하나 본래 피가 없고<sup>32)</sup> 鄙者의 下愚는 貧賤의 自立을 버리고 富貴의 備役に 마음을 달게 여긴다<sup>33)</sup>.

鄉에 薄者와 더불어 相依하지 못하는데 薄者의 不肖는 一心이 원래 衆人의 義가 없는 즉 相依하려하나 본래 얻을 수 없고 薄者의 下愚는 一室의 同保를 배반하고 世態의 炎涼에 굽히는 것을 달게 여긴다.

室에 貪者와 더불어 相謀 하지 못하는데 貪者의 不肖는 萬念이 온전히 肥己의 도모를 하려 한 즉 相謀하려하나 스스로 이룰 수 없고 貪者의 下愚는 四方의 群生을 돌아 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집안을 粧飾하는 것을 달게 여긴다.

衆에 懦者와 더불어 相得하지 못하는데 懦者의 不肖는 萬行이 온전히 役人의 계책으로 한 즉 相得하려하나 스스로 의지할 수 없고 懦者의 下愚는 天下의 全勢를 무시하고 스스로 鄉曲의 평범함에 달게 여긴다.

#### (4) 鄙薄貪儒者의 態度

鄙者의 능함은 尊顯한 者에게는 방자하게 하고 도리어 卑賤한 者에게는 차마 부끄러워 드러나지 않고<sup>34)</sup> 또 鄙者의 계획은 능히 富貴의 大家에서 훔쳐 얻으려고 한 즉 貧賤의 小家는 두려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속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까닭이다<sup>35)</sup>.

薄者의 능함은 慣熟한 者에게는 방자하게 하고 도리어 生疎한 者에게는 차마 부끄러워 드러나지 않고 또 薄者의 계획은 능히 친하고 가까운 者를 업신여겨 복종시킨 즉 성기고 먼 者가 자연히 風味를 보아 공경하게 되니 교만한 것을 싫어하지 않는 까닭이다.

貪者의 능함은 卑賤한 者에게는 방자하게 하고 도리어 尊顯한 者에게는 차마 부끄러워 드러나지 않고 또 貪者의 계획은 능히 衆人의 弱局을 비껴 침입한 즉 自己의 強局이 完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니 해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까닭이다.

儒者의 능함은 生疎한 者에게는 방자하게 하고 도리어 慣熟한 者에게는 차마 부끄러워 드러나지 않고 또 儒者의 계획은 능히 어질고 호걸을 질투하고 배척한 즉 不肖하고 어리석은 者는 자연히 歸屬한 바가 없어 자기의 쓰임이 되니 교활함을 싫어하지 않는 까닭이다.

#### (5) 鄙薄貪儒者의 行路

鄙者가 다행히 耿介者를 속이지 못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浮浪者와 더불어 曠野에서 竝作하고 薄者가 다행히 恩信者를 속이지 못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細瑣者와 더불어 陋巷에 同住하고 貪者가 다행히 忠義者를 속이지 못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奸諷者와 더불어 仇窟에 聚會하고 儒者가 다행히 材能者를 속이지 못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偷苟者와 더불어 利寶에 商議한다<sup>36)</sup>.

#### 4. 鄙薄貪儒者之心

##### (1) 鄙薄貪儒夫之心과 鄙薄貪儒夫에 대한 警戒

鄙夫의 마음은 훔치는데 있는 故로 鄙夫를 들에서 함께 하고 서로 신뢰하고자 하는 者는 그 신뢰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그 훔침을 당하니 鄙夫와 더불어 相成하려는 者는 그 신뢰를 보고 그 훔침을 살펴본 즉 거의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sup>37)</sup>.

薄夫의 마음은 업신여기는데 있는 故로 薄夫를 마을에서 건주어 서로 믿으려고 하는 者는 안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밖의 도적이 넘치니 薄夫와 더불어 相依하고자 하는 者는 안의 믿음을 보고 밖의 기울어짐을 살핀 즉 거의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sup>38)</sup>.

貪夫의 마음은 빼앗는데 있는 故로 貪夫를 방에서 사귀어 서로 온전히 하고자 하는 者는 온전함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그 빼앗음을 당하니 貪夫와 더불어 相謀하고자 하는 者는 온전함을 보고 빼앗음을 살펴본 즉 거의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sup>39)</sup>.

儒夫의 마음은 질투하는데 있는 故로 儒夫를 무리에 더불어 서로 구할려고 하는 者는 밖의 구함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안의 근거를 잃으니 儒夫와 더불어 얻으려고 하는 者는 밖의 구함을 보고 안의 시기를 살핀 즉 거의 팔리는 바를 당하지 않는다<sup>40)</sup>.

##### (2) 鄙薄貪儒之心과 奪侈懶竊之心의 비교

性命論에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은 獨行이라 하고 怠行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奪侈懶竊之心과 鄙薄貪儒之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頭有擅心하고 擅心 奪利하니 奪利라는 것은 貪者의 항상 貨財를 얻고자 하는 것과 貪者의 一身이 비록 가난한데 있으나 마음은 利가 항상 目前

에 있으니<sup>41)</sup> 이는 貪者之心이 專是奪也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肩有侈心하고 侈心 自尊하니 自尊이라는 것은 薄者는 항상 名譽를 얻고자 하는 것과 薄者의 一身이 비록 곤궁한데 있으나 마음은 名이 항상 目前에 있으니 이는 薄者之心이 專是侮也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腰有懶心하고 懶心 自卑하니 自卑라는 것은 儒者는 항상 地位를 얻고자 하는 것과 儒者의 一身이 비록 곤궁한데 있으나 마음은 權勢가 항상 目前에 있으니 이는 儒者之心이 專是妬也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臀有慾心하고 慾心 竊物하니 竊物이라는 것은 鄙者는 항상 權勢를 하고자 하는 것과 鄙者의 一身이 비록 賤한데 있으나 마음은 富貴가 항상 目前에 있으니 이는 鄙者之心의 專是竊也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性命論	獨行篇
頭有識見 識見 必無奪也 頭有擅心 擅心 奪利也	貪者之心 專是奪也
肩有威儀 威儀 必無侈也 肩有侈心 侈心 自尊也	薄者之心 專是侮也
腰有材幹 材幹 必無懶也 腰有懶心 懶心 自卑也	儒者之心 專是妬也
臀有方略 方略 必無竊也 臀有慾心 慾心 竊物也	鄙者之心 專是竊也

(3) 鄙薄貪儒者之心의 비유와 여러 형태

鄙者의 마음은 신뢰하지 못하고<sup>42)</sup> 욕심 많은 이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sup>43)</sup> 전체가 방자하고 거스르는 계책이고<sup>44)</sup> 진실로 임금을 존경하고 신하를 물러가게 하는 마음이 없다<sup>45)</sup>.

薄者의 마음은 세상의 형편대로 하고 교활한 토끼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체가 顯達하고 영화로움의 계책이고 진실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貪者의 마음은 크게 교활하고 큰 돼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체가 혼쾌히 만족하려는 계책이고 진실로 힘을 균등히 하고 재물을 고르게 하는 마음이 없다.

儒者의 마음은 거짓 영웅인체 하고 요사스런 여우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체가 높고 크게 되려는 계책이고 진실로 다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고 스스로 힘쓰는 마음이 없다.

(4) 鄙薄貪儒者之心과 忿懼, 恐懼, 好樂, 憂患之心

鄙薄貪儒者之心은 大學의 忿懼, 恐懼, 好樂, 憂患<sup>46)</sup>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鄙者의 마음은 항상 하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憤懼의 마음이 있고 薄者의 마음은 자기에게 인색함이 세밀하지 않게 여기지 않으니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憂患의 마음이 있고 貪者의 마음은 사람에게 취하는 것이 적게 여기지 않고 항상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恐懼의 마음이 있고 儒者의 마음은 항상 하고자 하는 바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好樂의 마음이 있다<sup>47)</sup>.

格致彙 儒略篇의 四夫之心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鄙者之心 恒有憤懼之心, 懦夫之心 常忿懼也 이 연계가 되고 薄者之心 恒有憂患之心, 薄夫之心 常憂患也 이 연계가 되고 貪者之心 恒有恐懼之心, 頑夫之心 常恐懼也 이 연계가 되고 儒者之心 恒有好樂之心, 懦夫之心 常忿懼也 이 연계가 된다.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어떤 일정한 규율에 의하여 心慾을 추정하여 정하기는 어렵고 또 이를 모두 맞추어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鄙夫와 鄙者의 차이점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여지를 가지고 생각하는게 좋을 듯하다.

獨行篇	儒略
鄙者之心 恒有憤懣之心	鄙夫之心 常好樂也 遍能然後 有爲 有守 而不好樂也 無義則偷惰而好樂
薄者之心 恒有憂患之心	薄夫之心 常憂患也 眞誠然後 與衆 同濟 而不憂患也 不智則無助而憂患
貪者之心 恒有恐懼之心	頑夫之心 常恐懼也 克勤然後 與物 俱立 而不恐懼也 不仁則不立而恐懼
儒者之心 恒有好樂之心	儒夫之心 常忿懣也 擴慧然後 有學 有教 而不忿懣也 無禮則格戾而忿懣

獨行篇	儒略	四端論
鄙者 不可與禮	無義則 偷惰而好樂 鄙夫之心 常好樂也	棄禮而放縱者 鄙人
薄者 不可與仁	不智則 無助而憂患 薄夫之心 常憂患也	棄智而飾私者 薄人
貪者 不可與義	不仁則 不立而恐懼 頑夫之心 常恐懼也	棄仁而極慾者 貪人
儒者 不可與智	無禮則 格戾而忿懣 儒夫之心 常忿懣也	棄義而偷逸者 儒人

### (5) 鄙薄貪儒者之心的 여러 가지 慾心の 형태

鄙者의 마음으로 富貴의 사치를 바라본 즉 畏敬하니 더욱 바라보고 다함이다. 없고 薄者의 마음으로 世途의 浮沈을 본 즉 부러워하니 더욱 보고 다함이 없고 貪者의 마음으로 病瘠의 鄉村을 도모한 즉 크고 탐내니 더욱 도모하고 많은 것을 계속하고 儒者의 마음으로 疲劇의 徒御를 익혀한 즉 편안하고 기대니 더욱 익히고 利를 계속한다<sup>48)</sup>.

### 5. 鄙薄貪儒者와 仁義禮智의 관계

(1) 仁義禮智에 관한 獨行篇과 儒略과 四端論의 비교

鄙薄貪儒者와 仁義禮智의 관계는 “鄙者是 禮를 더불어 할 수 없고 薄者是 仁을 더불어 할 수 없고 貪者是 義를 더불어 할 수 없고 儒者是 智를 더불어 할 수 없다”<sup>49)</sup>라고 하고 儒略에서는 “無義則 偷惰而好樂하고 鄙夫之心 常好樂也, 不智則 無助而憂患 薄夫之心 常憂患也, 不仁則 不立而恐懼 頑夫之心 常恐懼也, 無禮則 格戾而忿懣 儒夫之心 常忿懣也”라 하고 四端論에는 “棄禮而放縱者를 鄙人”이라 하고 “棄義而偷逸者를 儒人”이라 하고 “棄智而飾私者를 薄人”이라 하고 “棄仁而極慾者를 貪人”이라 했다.

이를 鄙薄貪儒者를 기준으로 배열을 하면 다음 표와 같다.

獨行篇과 四端論, 儒略의 仁義禮智와 鄙薄貪儒者와의 관계가 서로 틀리다. 시기적으로 보면 四端論의 鄙薄貪儒者와 仁義禮智의 관계가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으나 仁義禮智 四端을 人間의 本性으로 생각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屬性이 있을 수 있고 시기와 환경에 따라 四端을 적용시키는 것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獨行篇과 四端論, 儒略의 仁義禮智는 서로 각기 적용하는 방법이 틀리므로 당연히 서로 맞추는게 불가능하다. 仁義禮智는 鄙薄貪儒者의 心慾을 밝히기 위해서 인용하여 사용되고 있고 이를 모두 다 같은 속성의 仁義禮智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각기 나름대로 모두 맞는 것으로 생각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仁義禮智 四端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鄙薄貪儒者의 屬性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하고 되고 항상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가를 중요시 여겨야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人稟臟理의 有四不同으로 太少陰陽人으로 나뉘고 人趨心慾의 有四不同으로 鄙薄貪儒者로 나뉘는데 이를 서로 연계해서 예를 들면 鄙人은 太陽人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시각은 어느정도 경향성은 있지만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



(2) 鄙薄貪儒者와 仁義禮智者의 관계

鄙者是 察密하고 禮가 온전한 者를 경계하고  
거리고 薄者是 恩信하고 仁이 온전한 者를 경계하  
고 거리고 貪者是 經濟하고 義가 온전한 者를 경  
계하고 거리고 儒者是 材幹있고 智가 온전한 者를  
경계하고 거린다50).

鄙薄貪儒者之心の 속성을 仁義禮智와 연계한  
것을 보면 鄙者의 事功은 나약하고 주저하니 無禮  
한 奪心이 있고 薄者의 行身은 구차하고 작으니  
不智의 驕心이 있고 貪者의 用心은 누추하니 不仁  
한 橫心이 있고 儒者의 材力은 비천하고 용렬하니  
無義한 僭心이 있다51).

6. 鄙薄貪儒者와 忠信廉解者

(1) 鄙薄貪儒者와 忠信廉解者의 비교

忠者是 다른 집에 가면 집안사람을 부드럽게  
대하여 어른에게 공손하고52) 鄙者是 다른 집에 가  
면 집안사람을 호도하여 어른에게 공손하지 않게  
한다53).

信者是 다른 마을에 머무르면 外人을 순화하여  
주인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薄者是 다른 마을에  
머무르면 外人을 부려서 주인을 헐뜯는다.

廉者是 野局에 處하면 野局人으로 하여금 부지  
런하여 얻는 바가 있게 하고 貪者是 野局에 處하  
면 野局人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움직임을 없게 한  
다.

解者是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시키면 服役人으  
로 하여금 재주가 이루어지게 하고 儒者是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시키면 재주와 아는 바를 없게  
한다.

(2) 鄙薄貪儒者의 술책

鄙者是 간사함으로 충직함을 물리치는 술책이  
있고 薄者是 策로 堯를 쓰러뜨리는 술책이 있고

貪者是 頑으로 清廉을 제압하는 술책이 있고 儒者  
는 不肖로 현명한 者를 이기는 술책이 있다.

以奸擯忠之術은 群盜를 야기하여 舍從을 더하  
여 족히 믿게 하는 것이니 이는 鄙者의 公器를 엿  
보는 者이고 以桀傾堯之術은 儀表를 가장하고 交  
結를 아첨하여 先着하는 것이니 이는 薄者의 時世  
를 낚는 者이고 以頑制廉之術은 樞要를 근거하여  
黨援을 세워 緊務를 하는 것이니 이는 貪者의 地  
局을 다투는 者이고 以不肖勝賢之術은 香餌를 두  
어 遊士를 거두어 妙策을 삼으니 이는 儒者의 材  
力을 거두는 자이다54).

(3) 鄙薄貪儒者와 忠信廉解者의 행동을 비교

忠者是 庶務를 힘쓰고 鄙者是 간사한 무리를  
暗約하여 公器를 훔치고 信者是 內比를 가까이 궁  
홀히 하고 薄者是 멀리 外黨을 불러 人衆을 기울  
어지게 하고 廉者是 風俗을 단아하게 하고 貪者是  
猾流를 급히 맺어 地局을 오로지 하고 解者是 몸  
이 먼저 勇敢하고 儒者是 多衆을 게으르고 속여  
位權에 근거한다55).

忠者의 行은 鄙者가 반드시 怒하니 直尺의 小  
諒로 자기는 많게 하고 다른 이는 간략하게 하고  
信者의 行은 薄者가 반드시 怒하니 彌縫의 小諒으  
로 자기를 귀하게 하고 다른 이를 천하게 하고 廉  
者의 行은 貪者가 반드시 怒하니 要名의 小讓으로  
반드시 廣居를 합하고자 하고 解者의 行은 儒者가  
반드시 怒하니 誘人의 小慧로 반드시 大位를 據하  
여 취하고자 한다56). 이는 忠信廉解者와 鄙薄貪儒  
者의 행동을 비교하였다.

鄙者의 力은 간략히 忠者에 一長이 있으니 凌  
心이 生하고 忠으로 鄙者를 制하려면 더욱 力을  
다지 않을 수 없고 薄者의 交는 간략히 信者에 一  
長이 있으니 傾心이 반드시 生하고 信으로 薄者를  
制하려면 더욱 交을 다지 않을 수 없고 貪者의 局

은 간략히 濟者에 一長이 있으니 賊心이 반드시 生하고 濟로 貪者를 制하려면 더욱 局을 닦지 않을 수 없고 儒者의 獸는 간략히 幹者에 一長이 있으니 掩心이 반드시 生하고 幹으로 儒者를 制하려면 더욱 獸를 닦지 않을 수 없다.57)라고 하여 이는 忠信廉解者의 鄙薄貪儒者에 대한 경계를 말하였다.

### 7. 鄙薄貪儒者와 心四端의 私心과 物四端과의 관계

鄙者의 慾心은 싫어함이 없고 薄者의 私心은 다함이 없고 貪者의 放心은 끝이 없고 儒者의 佚心은 쉽다58). 心四端의 學問思辨이 私心 慾心 放心 逸心 의하여 각각 昧心 闇心 窒心 罔心이 되어 昧學 闇辨 窒問 罔思하게 되는데59) 鄙薄貪儒者에서는 慾心, 私心, 放心, 佚心이 鄙薄貪儒者의 마음중에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鄙者의 心은 마땅히 삼가고 거만하지 않아야 하니 삼가하면 資身의 策을 專하고 거만하면 招奸의 術이 蠢이고 薄者의 膽은 마땅히 물러나고 나아가지 않아야 하니 물러나면 愛物의 肅음이 아름답고 나아가 즉 誣賢의 量이 敢이고 貪者의 志는 마땅히 천천히 하고 급하게 하지 않아야 하니 천천히 하면 反本의 後悔를 얻고 급하게 하면 虐民의 계획이 위험하고 儒者의 意는 마땅히 진실하게 하고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니 진실하면 修身의 正성이 이르고 업신여기면 自尊의 어리석음이 이루어 진다60). 이는 鄙薄貪儒者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의 잘못됨을 말하고 있다. 志膽慮意는 物四端이고 이를 鄙薄貪儒者의 心膽志意와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 8. 鄙薄貪儒者의 모습

#### (1) 鄙薄貪儒者의 喜怒哀樂

鄙者의 眉端이 싱글벙글하여 기쁜색이 있는 것은 발을 가는 貧業을 자랑하는데에 흥미있어 하고 薄者의 頤邊이 무뚝뚝하여 怒色이 있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賤屬을 힘쓰는데에 교만하고 사나움이 있고 貪者의 眦間은 근심스러워 哀態가 있는 것은 致産의 곤궁한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데에 慾利가 있고 儒者의 觀上이 즐거워 하여 樂容이 있는 것은 勢를 잃은 窮士를 업신여기는데 意想이 있다61).

#### (2) 鄙薄貪儒者의 익숙한 모습과 대처하는 행동

鄙者의 眼孔은 清廉함에 익숙하여 懶怠함에 일관하고 清廉한 者를 보면 속이기가 어렵지 않고 懶怠한 者를 보면 진실로 또한 쉽다62) 薄者의 眼孔은 恩信함에 친압하고 貞諒함을 잘 알아서 恩信한 者를 보면 속이기가 어렵지 않고 貞諒한 者를 보면 거만하기가 또한 쉽다63) 貪者의 眼孔은 忠義함에 우롱하고 간사하고 속이는데 능하여 忠義한 者를 보면 속이기가 어렵지 않고 奸譎한 者를 보면 더불어 하는 것이 또한 쉽다64) 儒者의 眼孔은 賢能함에 친압하고 勤篤함에 교활하여 賢能한 者를 보면 속이기가 어렵지 않고 勤篤한 者를 보면 부리기가 또한 쉽다65).

또 鄙薄貪儒者의 모습과 향상의 욕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鄙者의 一身이 비록 賤한 곳에 處하나 마음인 부귀가 항상 目前에 있고 薄者의 一身이 비록 곤궁한데 처하나 마음은 名이 항상 目前에 있고 貪者의 一身이 비록 가난한데 처하나 마음은 大利가 항상 目前에 있고 儒者의 一身이 비록 곤궁한데 처하나 마음은 권세에 자리함이 항상 目前에 있다66).

#### (3) 人之常情과 鄙薄貪儒者의 상반된 행동

好善嫉惡이 人之常情인데 鄙者의 眼前은 善惡

反常하고 鄙者의 心身이 이에 이르니 가히 슬프고 厚親薄疎가 人之常情인데 薄者의 眼前은 親疎가 反常하고 薄者의 心身이 이에 이르니 가히 슬프고 用能 舍否가 人之常情인데 貪者의 眼前은 能否가 反常하고 貪者의 心身이 이에 이르니 가히 슬프고 貴賢賤不肖가 人之常情인데 儒者의 眼前은 賢不肖가 反常하고 儒者의 心身이 이에 이르니 가히 슬프도다67).

9. 鄙薄貪儒者의 食狼 妖狐 狡兔 封豕에 비유  
(1) 鄙薄貪儒者의 동물에 대한 비교

鄙者의 마음은 욕심 많은 이리의 마음이라 하고 薄者의 마음은 교활한 토끼의 마음이라 하고 貪者의 마음은 큰 돼지의 마음이라 하고 儒者의 마음은 요사스런 여우의 마음이라 한다68).

(2) 食狼, 妖狐, 狡兔, 封豕之心과 가져야 할 마음

食狼의 外面이 忠眞이나 忠眞中心이 伎心이고 妖狐의 外面이 從容이나 從容中心이 賣心이고 狡兔의 外面이 謙遜이나 謙遜中心이 恨心이고 封豕의 外面이 俊秀나 俊秀中心이 狼心이다69). 또 食狼이여 愧心을 가지고 妖狐이여 作心을 가지고 狡兔이여 羞心을 가지고 封豕이여 慚心을 가져라70)라고 하는 것은 食狼, 妖狐, 狡兔, 封豕가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다.

食狼이여 賊心을 버리고 敦心을 돌이켜라 賊心은 사람을 해치고 敦心은 자기를 이롭게 하고 妖狐이여 殘心을 버리고 謹心을 돌이켜라 殘心은 사람을 해치고 謹心은 자기를 이롭게 하고 狡兔이여 背心을 버리고 篤心을 돌이켜라 背心은 사람을 해치고 篤心은 자기를 이롭게 하고 封豕이여 橫心을 버리고 信心을 돌이켜라 橫心은 사람을 해치고 信心은 자기를 이롭게 한다71).

(3) 食狼, 妖狐, 狡兔, 封豕에 대한 경계와 대처

하는 방법

衆狼이 모르게 힘을 숨기고 一狼이 집을 엿보 니 경계하고 衆狐가 피를 험력하고 一狐가 그러하 니 경계하고 衆兔가 모르게 기회를 만들고 一兔가 배에 들어오니 삼가하고 衆豕가 勢를 살피고 一豕가 놓여 있으니 공경하라72).

이리가 나의 문을 돌아보고 나의 間隙을 엿보 니 내 스스로 默然하면 이리가 능히 시험하지 못하고 여우가 방을 아침하고 나의 智愚를 청하니 내 스스로 欣然하면 여우가 능히 측정할 수 없고 토끼가 三窟을 지나 나의 利寶를 유인하니 내 스스로 浩然하면 토끼가 기교를 부리지 못하고 돼지가 百道를 공격하니 나의 方便을 살피니 내 스스로 悠然하여 돼지가 도모하지 못한다73).

### III. 考察

獨行篇의 전체적인 구도는 인간의 본성인 仁義 禮智를 仁者, 義者, 禮者, 智者로 규정하고 이의 속성을 忠, 信, 立, 勇이라 하고 이 개념을 忠信廉 解者로 하여 人趨心慾인 鄙薄貪儒者와 대비시켜 놓았다. 이러한 鄙薄貪儒者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다.

禮者는 밝고 마땅함(顯允)과 꾀(有謀)와 충성함(有忠)이라 하고 仁者는 즐겁고 편하게 하는 것(樂易)과 포용함(有容)과 믿음(有信)이라 하고 義者는 정돈하여 가지런함(整齊)과 능함(有能)과 마땅함을 세움(有立)이라 하고 智者는 마음이 넓고 작은 일에 개의하지 않음(闊達)과 재주(有才)와 용기(有勇)로 규정 하고 鄙者는 더럽고 탐하며(陋婪) 薄者는 교활하고 어기며(狡回) 貪者는 교만하고 거스르며(驕橫) 儒者는 속이고 거짓(詐僞)을 한다 라고 하였다. 禮者 仁者 義者 智者의 속성인 忠, 信, 立, 勇과 鄙者, 薄者, 貪者, 儒者의 與忠者 爭

公器, 與信者 爭時世, 與廉者 爭地局, 與解者 爭處勢와의 관계로 볼 때 서로 상대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孟자의 四夫之心과 鄙薄貪懦者의 관계는 먼저 鄙夫, 薄夫, 頑夫, 懦夫를 仁義禮智者의 속성과 연계해서 생각하고 유추를 해 볼 수 있다. 柳下惠는 더러운 군주를 섬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작은 벼슬을 사양하지 않는 것은 禮者의 마땅함(顯允)과 꾀(有謀)와 충성(有忠)하는 속성과 忠者의 행동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고 鄙者는 忠者와 公器를 다룬다고 하였으니 柳下惠의 風度를 들은 者들은 鄙夫가 너그러워진다고 할 수 있고 벼슬길에서 버림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곤궁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으며 향인들과 더불어 처하되 유유하게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은 仁者의 즐겁고 편하게 하는 것(樂易)과 포용(有容)하는 속성과 信者의 행동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고 薄者는 信者와 時世를 다룬다고 하였으니 柳下惠의 풍도를 들은 者들은 薄夫가 인심이 후해진다고 할 수 있고 伯夷는 눈으로는 나쁜 빛을 보지 아니하며,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섬길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아니하며,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아니하여,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하면 물러가니 義者의 정돈하여 가지런함(整齊)과 마땅함을 세우는(有立) 속성과 廉者의 행동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고 貪者는 廉者와 地局을 다룬다고 하였으니 伯夷의 풍도를 들은 者들은 頑夫가 청렴해진다고 할 수 있고 伯夷는 紂의 때를 당하여 북해의가에 거처하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智者는 작은 일에 개의하지 않는(闕達) 자기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것과 재주(有才)와 용기(有勇)의 속성과 解者의 행동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고 懦者는 解者와 處勢를 다룬다고 하였으니 伯夷의 풍도를 들은 者들은 懦夫가立志

를 갖게 된다.

이는 鄙薄貪懦者가 仁者, 禮者, 義者, 智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柳下惠, 伯夷의 風度를 들으면 忠信廉解者의 행동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孟자의 四夫之心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鄙薄貪懦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고 또 거짓으로 하는 행동과 不肖, 下愚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鄙薄貪懦者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鄙薄貪懦者之心을 大學의 四夫之心을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독행편의 鄙薄貪懦者之心과 儒略의 四夫之心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鄙者之心 恒有憤懣之心, 懦夫之心 常忿懣也이 연계가 되고 薄者之心 恒有憂患之心, 薄夫之心 常憂患也이 연계가 되고 貪者之心 恒有恐懼之心, 頑夫之心 常恐懼也이 연계가 되고 懦者之心 恒有好樂之心, 懦夫之心 常忿懣也이 되는데 연계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어떤 일정한 규율에 의하여 心慾을 추정하여 정하기는 어렵고 또 이를 도식화하여 모두 맞추어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格致叢과 儒略의 저술이 시기적으로 틀리다고하여 儒略의 개념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먼저 鄙夫와 鄙者의 차이점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느정도 여지를 가지고 생각하는게 좋을 듯하다.

鄙薄貪懦者와 仁義禮智의 관계를 살펴보면 獨行篇, 四端論, 儒略의 仁義禮智와 鄙薄貪懦者와의 관계가 서로 틀리다. 시기적으로 보면 四端論의 鄙薄貪懦者와 仁義禮智의 관계가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으나 仁義禮智 四端을 人間의 本性으로 생각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屬性이 있을 수 있고 시기와 환경에 따라 四端을 적용시키는 것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獨行篇과 四端論, 儒略의 仁

義禮智는 서로 각기 적용하는 방편이 틀리므로 당연히 서로 맞추는게 불가능하다. 仁義禮智는 鄙薄貪儒者의 心慾을 밝히기 위해서 인용하여 사용되고 있고 이를 모두 다 같은 속성의 仁義禮智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각기 나름대로의 의미로 생각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仁義禮智 四端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鄙薄貪儒者의 屬性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되고 항상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가를 중요시 여겨야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鄙薄貪儒者와 忠信廉解者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鄙薄貪儒者의 술책으로 忠信廉解者를 制하는 것과 서로의 행동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 鄙薄貪儒者를 心四端의 私心과 物四端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鄙薄貪儒者의 喜怒哀樂하는 모습과 人之常情에 상반하여 행동하는 鄙薄貪儒者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동물에 비유하여 貪狼, 妖狐, 狡兔, 封豕라 하여 이에 대한 경계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 IV. 結 論

獨行篇은 知人の 방법에 관하여 쓰여 있는데 이는 東武公의 人性論의 개념인 好善惡惡하는 것을 중심으로 人趨心慾인 鄙薄貪儒者를 설정하고 이를 心慾의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른 저술과 서로 상반되기도하고 유사한 점도 있는데 이를 처음 저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本性 차원인 仁義禮智 四端의 상대 개념으로 鄙薄貪儒者를 생각하기 보다는 仁者, 義者, 禮者, 智者의 상대 개념인 鄙薄貪儒者를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고 心慾 차원인 鄙薄貪儒者는 어느정도 시기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생

각하는 것이 이를 이해하는데 더 좋을 듯 하다. 心慾차원의 鄙薄貪儒者의 설정 및 설명은 鄙薄貪儒者가 修養하고 마음을 닦으면 君子의 不動心의 상태에 갈 수 있고 仁者, 義者, 禮者, 智者로의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것이 獨行篇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獨行篇에 나타난 鄙薄貪儒者에 대한 고찰하여 다음과 결과를 얻었다.

1. 獨行篇은 인간의 본성인 仁義禮智를 仁者, 義者, 禮者, 智者로 규정하고 이의 속성을 忠, 信, 立, 勇이라 하고 이 개념을 忠信廉解者로 하여 人趨心慾인 鄙薄貪儒者와 대비시켜 놓고 鄙薄貪儒者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鄙者, 薄者, 貪者, 儒者의 與忠者 爭公器, 與信者 爭時世, 與廉者 爭地局, 與解者 爭處勢劣의 관계로 볼 때 서로 상대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2. 孟子의 四夫之心과 鄙薄貪儒者의 관계는 鄙夫, 薄夫, 頑夫, 懦夫를 仁義禮智者의 속성과 연계해서 생각하고 유추를 해 볼 수있고 鄙薄貪儒者가 仁者, 禮者, 義者, 智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柳下惠, 伯夷의 風度를 들으면 忠信廉解者의 행동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孟子의 四夫之心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寬

禮者 顯允 忠者 ← 鄙夫

敦

仁者 樂易 信者 ← 薄夫

廉

義者 整齊 廉者 ← 頑夫

有立志

智者 闊達 解者 ← 懦夫

3. 鄙薄貪儒者之心을 大學의 四夫之心을 인용하

여 설명하는데 獨行篇의 鄙薄貪懦者之心과 儒略의 四夫之心을 생각해보면 어떤 일정한 규율에 없는데 이는 心慾을 추정하여 정하기는 어렵고 도식화하여 맞추어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格致黨과 儒略의 저술이 시기적으로 틀리다고하여 儒略의 개념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먼저 鄙夫와 鄙者의 차이점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느정도 여지를 가지고 생각하는게 좋을 듯하다.

4. 鄙薄貪懦者와 仁義禮智의 관계는 獨行篇, 四端論, 儒略의 仁義禮智와 鄙薄貪懦者와의 관계가 서로 틀리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四端論의 鄙薄貪懦者와 仁義禮智의 관계가 맞다고 할 수 있으나 仁義禮智 四端을 人間의 本性으로 생각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屬性이 있을 수 있고 시기와 환경에 따라 四端을 적용시키는 것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仁義禮智 四端을 기준으로 생각하는것 보다는 鄙薄貪懦者의 屬性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하고 되고 항상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가를 중요시 여겨야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 參 考 文 獻

1. 이제마 격치고 함흥 덕흥인쇄소
2.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서울 행림출판 1963
3. 성백효譯 대학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1
4. 성백효譯 맹자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1
5. 송일병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6. 장현진 獨行篇의 構成과 知人論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7. 김종원 李濟馬의 獨行篇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6. No.1. 1994

## 각 주

- 1) 송일병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P.1.
- 2) 장현진 獨行篇의 構成과 知人論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P.23.
- 3)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人趨心慾에 有四不同하니 棄禮而放縱者를 名曰 鄙人이오 棄義而偷逸者를 名曰 懦人이오 棄智而飾私者를 名曰 薄人이오 棄仁而極慾者를 名曰 貪人이니라.
- 4) 格致黨 獨行篇. 篇名獨行은 何義耶오 曰好而知其惡 則中立而不倚하고 惡而知其美 則和而不流니 如此者는 自然獨行하고 獨行者는 不動心이니라
- 5) 格致黨 獨行篇. 知人誠僞 則不惑하고 不惑 則正心하고 正心 則不動心하고 不動心 則運世中庸이 無悶이니라
- 6) 格致黨 獨行篇. 蓋已誠未盡 則人僞難悉하고 已僞猶存 則人誠亦疑니 惟天下에 至誠不僞 能盡其性者然後에 可以悉人之誠僞니 如此者는 堯舜也오 孔孟也오 衆聖也라
- 7) 獨行篇. 公器者는 衆員團會하고 黎元仰戴論議安危하여 和讓行能하니 君子招君子同進하고 小人招小人同進하니 政令由此하여 富貴由此之所也니라
- 8) 獨行篇. 時世者는 一世人民이 行于一世하여 各自修勅하고 各自交遊하니 直者與直者로 相得하고 曲者與曲者로 相得하여 名實稍著니 黨與漸成之權也니라
- 9) 獨行篇. 地局者는 大家一身이 處地一方하여 萬家恒産하고 萬務同出하니 廉者廣濟하고 貪者擅利하니 成就人民 蕃殖財力之局也니라
- 10) 獨行篇. 處勢者는 上下人類 同聚之處에 材力不等하고 賢愚殊品하니 人爵之處勢에 貴者 據上하고 賤者 屈下하고 天爵之處勢에 智者 發號하고 愚者 聽令하여 地位自立하니 行列自定之勢也니라
- 11) 獨行篇. 忠者는 方略庶務하고 而鄙者는 暗約奸徒하여 輒竊公器하고 信者는 近恤內比하고 而薄者는 遠招外黨하여 輒傾人衆하고 廉者는 雅鎮風俗하고 而貪者는 巫結猾流하여 輒專地局하고 解者는 身先勇敢하고 而懦者는 懶誣多衆하여 輒據位權이라
- 12) 孟子, 章章句下, “柳下惠는 不羞汚君하며 不辭小官하며 進不隱賢하여 必以其道하며 遺佚而不恐하

며 阨窮而不憫하며 與鄉人處하되 由由然不忍去也 하여 爾爲爾요 我爲我니 雖袒褌裸裎於我側인들 爾焉能浼我 哉리오하니 故로 聞柳下惠之風者는 鄙夫寬하며 薄夫敦하니라”.

- 13) 孟子, 萬章章句下, “孟子曰 伯夷는 目不視惡色하며 耳不聽惡聲하고 非其君不事하며 非其民不使하며 治則進하고 亂則退하며 橫政之所出과 橫民之所止에 不忍居也하며 思與鄉人處하되 如以朝衣朝冠으로 坐於塗炭也러니 當紂之時하야 居北海之濱하야 以待天下之濟也하니 故로 聞伯夷之風者는 頑夫廉하야 懦夫有立志하니라”.
- 14) 獨行篇. 鄙者는 恒欲權勢하고 薄者는 恒欲名譽하고 貪者는 恒欲貨財하고 儒者는 恒欲地位니라
- 15) 獨行篇. 鄙者는 不恭其心하고 薄者는 不愛其家하고 貪者는 不敬其業하고 儒者는 不動其身니라
- 16) 獨行篇. 鄙者는 不可與佑하고 薄者는 不可與結하고 貪者는 不可與保하고 儒者는 不可與爲니라
- 17) 獨行篇. 鄙者는 每每誣人하고 薄者는 每每上人하고 貪者는 每每并人하고 儒者는 每每役人니라
- 18) 獨行篇. 鄙者는 自恃衆力하고 薄者는 自恃儀表하고 貪者는 自恃手段하고 儒者는 自恃舞智니라
- 19) 獨行篇. 鄙者는 假樣忠厚하고 薄者는 假樣雅謙하고 貪者는 假樣俊彦하고 儒者는 假樣黠能이니라
- 20) 獨行篇. 鄙者는 必圖主張하고 薄者는 必圖華侈하고 貪者는 必圖強盛하고 儒者는 必圖威重이니라
- 21) 獨行篇. 鄙者는 不屑功勞하고 薄者는 不屑眞實하고 貪者는 不屑勤儉하고 儒者는 不屑修勅니라
- 22) 獨行篇. 鄙者는 陰賊耿介者요 貪者는 陰賊直義者요 薄者는 陰賊惠愛者요 儒者는 陰賊行能者라
- 23) 獨行篇. 鄙者는 愚弄懶怠者요 儒者는 愚弄貞篤者요 貪者는 愚弄奸譎者요 薄者는 愚弄貞諒者라
- 24) 獨行篇. 鄙者는 合從人下者요 貪者는 朋黨人上者요 薄者는 締結在外者요 儒者는 和同在內者라
- 25) 獨行篇. 鄙者는 能瞞富貴者요 儒者는 能詒貧賤者요 貪者는 能誑庸駑者요 薄者는 能詐英雄者라
- 26) 獨行篇. 鄙者는 棄其資業하야 圖他巨室이오 貪者는 眩其巨室하야 陷他資業이오 薄者는 欺其同室하고 又欺他同室이오 儒者는 罷其民力하고 又罷他民力이니라
- 27) 獨行篇. 鄙者之行匡直者는 非實心而行匡直也하고 其計 在於總公器而籠富貴也라 薄者之行和讓者는 非實心而行和讓也하고 其計 在於收時世而得雅望也라 貪者之行恩惠者는 非實心而行恩惠也하고 其計 在於擅地方而據強盛也라 儒者之行公正者는 非實心而行公正也하고 其計 在於主處勢而莅威重也라
- 28) 獨行篇. 鄙者之悅耿介者는 非眞心而悅之也니 稍

久則生慢心也라 薄者之敬恩信者는 非眞心而敬之也니 稍久則生侮心也라 貪者之恤忠義者는 非眞心而恤之也니 稍久則生賊心也라 儒者之愛賢能者는 非眞心而愛之也니 稍久則生妬心也라

- 29) 孟子. 公孫丑章句上, 何謂知言이니잇고 曰 詖辭에 知其所蔽하며 淫辭에 知其所陷하며 邪辭에 知其所離하며 遁辭에 知其所窮이니 生於其心하야 害於其政하야 發於其政하야 害於其事하야니 聖人復起사도 必從吾言矣시리라
- 30) 獨行篇. 鄙者之詖辭는 佯與於相成이나 而憂人之實相成者는 兩相仗也요 薄者之邪辭는 佯與於相依나 而憂人之實相依者는 兩相依也요 貪者之淫辭는 佯爲行廉이나 而憂人之實行廉者는 克行廉也요 儒者之遁辭는 佯爲開喻나 而憂人之實開喻者는 克開喻也라
- 31) 獨行篇. 在野에 不可與鄙者相成하고 在室에 不可與貪者相謀하고 在鄉에 不可與薄者相依하고 在衆에 不可與儒者相得이라
- 32) 獨行篇. 鄙者之不肖는 一身 元無資身之策則與之於相成者이나 本無可謀者也라 貪者之不肖는 萬念全爲肥己之圖則與之於相謀者이나 自無可成者也라 薄者之不肖는 一心 元無衆人之義則與之於相依者이나 本無可得者也라 儒者之不肖는 萬行 全爲役人之計則與之於相得者이나 自無可依者也라
- 33) 獨行篇. 鄙者之下愚는 捨其貧賤之自立而甘心於富貴之備役者니 心厭乎積累之故也라 薄者之下愚는 背其一室之同保而甘屈於世態之炎涼者니 心厭乎愛敬之故也라 貪者之下愚는 不顧四方之群生而甘自粧飾其身家者니 心厭乎均一之故也라 儒者之下愚는 沒却天下之全勢而甘自庸碌於鄉曲者니 心厭乎修省之故也라
- 34) 獨行篇. 鄙者之能은 恣橫肆毒於尊顯者而反隱忍含垢於卑賤者하니 予奪之權也요 貪者之能은 恣橫肆毒於卑賤者而反隱忍含垢於尊顯者하니 強弱之形也요 薄者之能은 恣橫肆毒於慣熟者而反隱忍含垢於生疎者하니 畏侮之勢也요 儒者之能은 恣橫肆毒於生疎者而反隱忍含垢於慣熟者하니 攻守之策也라
- 35) 獨行篇. 鄙者之成算은 自以謂能竊得於富貴之大家則貧賤之小家는 自不容不畏服也하야 所以不厭瞞也라 貪者之成算은 自以謂能橫侵於衆人之弱局則自己之強局이 自不容不完成也하야 所以不厭賊也라 薄者之成算은 自以謂能侮伏其親而近者則其疎而遠者 自然望其風味而爲已敬也하야 所以不厭驕也라 儒者之成算은 自以謂能妬斥其賢而豪者則其不肖而庸者는 自然無所歸屬而爲己用也하야 所以不厭效也라
- 36) 獨行篇. 鄙者는 幸而不能欺耿介者則包羞忍屈而與

浮浪者하여 竝作於曠野하고 薄者는 幸而不能欺恩 信者則包羞忍屈而與細項者하여 同住於陋巷하고 貪者는 幸而不能欺忠義者則包羞忍屈而與奸譎者하여 聚會於仇窟하고 儒者는 幸而不能欺材能者則包羞忍屈而與偷苟者하여 商議於利寶라

- 37) 獨行篇. 鄙夫之心은 竊也故로 借鄙夫於野而欲相賴者는 不得其賴而反受其竊也라 所以與鄙夫成者는 觀其賴而察其竊則 幾乎不爲所瞞也라
- 38) 獨行篇. 薄夫之心은 侮也故로 比薄夫於鄉而欲相恃者는 不得其內恃而反益其外寇也라 所以與薄夫依者는 觀其內恃而察其外傾則 幾乎不爲所詐也라
- 39) 獨行篇. 貪夫之心은 奪也故로 交貪夫於室而欲相全者는 不得其全而反被其奪也라 所以與貪夫謀者는 觀其全而察其奪則 幾乎不爲所賊也라
- 40) 獨行篇. 儒夫之心은 妬也故로 與儒夫於衆而欲相濟者는 不得其外濟而反失其內據也라 所以與儒夫得者는 觀其外濟而察其內猜則 幾乎不爲所賣也라
- 41) 獨行篇. 鄙者一身이 雖處甚賤이나 而其心則富貴常如在目前也하고 儒者一身이 雖處甚窮이나 而其心則位權常如在目前也하고 貪者一身이 雖處甚貧이나 而其心則大利常如在目前也하고 薄者一身이 雖處甚困이나 而其心則大名常如在目前也니라
- 42) 獨行篇. 鄙者之心은 專是無賴也요 薄者之心은 專是世態也요 貪者之心은 專是巨猾也요 儒者之心은 專是僭雄也니라
- 43) 獨行篇. 鄙者之心은 可謂貪狼之心也요 薄者之心은 可謂狡兔之心也요 貪者之心은 可謂封豕之心也요 儒者之心은 可謂妖狐之心也니라
- 44) 獨行篇. 鄙者之心은 全體都是恣橫之計也요 薄者之心은 全體都是顯榮之計也요 貪者之心은 全體都是快足之計也요 儒者之心은 全體都是尊大之計也니라
- 45) 獨行篇. 鄙者之心은 眞無尊君抑臣之心也요 薄者之心은 眞無愛幼敬長之心也요 貪者之心은 眞無均力平貨之心也요 儒者之心은 眞無勸人自勉之心也니라
- 46) 大學. 所謂修身이 在正其心者는 身(心)有所忿懣면 則不得其正하며 有所恐懼면 則不得其正하며 有所好樂(요)면 則不得其正하며 有所憂患이면 則不得其正이니라
- 47) 獨行篇. 鄙者之心은 恒有憤懣之心者니 恒不得所欲之故也라 儒者之心은 恒有好樂之心者니 恒欲得所欲之故也라 貪者之心은 恒有恐懼之心者니 取於人者는 不爲不多而恒不繼之故也라 薄者之心은 恒有憂患之心者니 吝於己者는 不爲不密而恒不足之故也라
- 48) 獨行篇. 以鄙者之心으로 望富貴之侈靡則可畏而可

敬이니 愈望而愈無極也라 以薄者之心으로 閱世途之浮沈則可歎而可艶이니 愈閱而愈無窮也라 以貪者之心으로 圖病瘠之鄉村則可豐而可慾이니 愈圖而愈繼多也라 以儒者之心으로 玩疲劇之徒御則可逸而可靠니 愈玩而愈繼利也라

- 49) 獨行篇. 鄙者는 不可與禮하고 薄者는 不可與仁하고 貪者는 不可與義하고 儒者는 不可與智니라
- 50) 獨行篇. 鄙者는 他無所忌나 而所獨忌者는 察密而禮全者也요 薄者는 他無所忌나 而所獨忌者는 恩信而仁全者也요 貪者는 他無所忌나 而所獨忌者는 經濟而義全者也요 儒者는 他無所忌나 而所獨忌者는 材幹而智全者也라
- 51) 獨行篇. 鄙者之事功은 懦慳而無禮之奪心이 無時無也요 儒者之材力은 卑劣而無義之僭心이 無時無也요 貪者之用心은 陋醜而不仁之橫心이 無時無也요 薄者之行身은 苟小而無智之驕心이 無時無也라
- 52) 獨行篇. 忠者는 賓他人之門庭則陰化其家人하여 忠其長也요 信者는 住他人之鄉保則能順其外人하여 不侮其主也요 廉者는 處野局則俾野局人으로 皆有所勸得하고 解者는 使服役則俾服役人 皆有所才成이니라
- 53) 獨行篇. 鄙者는 賓他人之門庭則陰導其家人하여 不忠其長也요 薄者는 住他人之鄉保則能曠其外人하여 毀其主也요 貪者는 處野局則俾野局人으로 無所動作이요 儒者는 使服役則俾服役人으로 無所才識이니라
- 54) 獨行篇. 鄙者之窺公器者는 以惹群盜而益合從爲足恃하니 此는 所以奸橫忠之術也요 薄者之釣時世者는 以善儀表而媚交結爲先着하니 此는 所以榮傾堯之術也요 貪者之爭地局者는 以據樞要而樹黨援爲緊務하니 此는 所以頑制廉之術也요 儒者之掩材力者는 以設香餌<sup>74)</sup>而收遊士爲妙策하니 此는 所以不肖勝賢之術也라
- 55) 獨行篇. 忠者는 方略庶務하고 而鄙者는 暗約奸徒하여 輒竊公器하고 信者는 近恤內比하고 而薄者는 遠招外黨하여 輒傾人衆하고 廉者는 雅鎮風俗하고 而貪者는 亟結猾流하여 輒專地局하고 解者는 身先勇敢하고 而儒者는 懶誦多衆하여 輒據位權이라
- 56) 獨行篇. 忠者之行은 鄙者 必怒之者니 以其直尺之小諒而自多而簡他也라 信者之行은 薄者 必怒之者니 以其彌縫之小諒而貴己而賤人也라 廉者之行은 貪者 必怒之者니 以其要名之小讓而必欲竝吞廣居也라 解者之行은 儒者 必怒之者니 以其誘人之小慧而必欲據取大位也라
- 57) 獨行篇. 鄙者之力은 粗有一長於忠者則凌心必生也라 故로 以忠而制鄙者는 不可不益修力也라 薄者



之交는 粗有一長於信者則 傾心必生也라 故로 以信而制薄者는 不可不益修交也라 食者之局은 粗有一長於濟者則賊心必生也라 故로 以濟而制食者는 不可不益修局也라 儒者之飲는 粗有一長於幹者則掩心必生也라 故로 以幹而制儒者는 不可不益修飲也라

- 58) 獨行篇. 鄙者之慾心은 無厭也니 可鎮而不可瀆也요 薄者之私心은 無窮也니 可遠而不可邈也요 食者之放心은 無極也니 可停而不可邈也요 儒者之佚心은 無歇也니 可備而不可與也니라
- 59) 儒略. 私心而昧學者는 視天下事忽 而視自己事重也오 慾心而闇辨者는 視天下物貪 而視自己物屑也오 放心而空問者는 思一身無慮而橫行 則快於心也오 逸心而罔思者는 思一心無爲而自棄 則便於身也니라
- 60) 獨行篇. 鄙者之心은 宜謹而不宜慢也라 謹則資身之策이 專也요 慢則招奸之術이 毒也라 薄者之膽은 宜退而不宜進也라 退則愛物之誼 嘉也요 進則誣賢之量이 敢也라 食者之志는 宜緩而不宜急也라 緩則反本之悔 得也요 急則虐民之計 險也라 儒者之意는 宜實而不宜凌也라 實則修身之誠 到也요 凌則自尊之癡 成也라
- 61) 獨行篇. 鄙者之眉端이 施施然하여 有喜色者는 興味在於夸耕野之食業也라 薄者之頤邊이 兀兀然하여 有怒色者는 驕復在於勳竭忠之賤屬也라 食者之皆間은 戚戚然하여 有哀態者는 慾利在於羨致産之困氓也라 儒者之觀上은 欣欣然하여 有樂容者는 意想在於侮失勢之窮士也라
- 62) 獨行篇. 鄙者之眼孔은 玩於廉隅而慣於懶怠故로 見廉隅者則瞞之非難也오 見懶怠者則苟之亦易也라
- 63) 獨行篇. 薄者之眼孔은 狎於恩信而褻於貞諒故로 見恩信者則詐之非難也요 見貞諒者則慢之亦易也라
- 64) 獨行篇. 食者之眼孔은 弄於忠義而能於奸譎故로 見忠義者則誑之非難也요 見奸譎者則與之亦易也라
- 65) 獨行篇. 儒者之眼孔은 狃於賢能而狡於勤篤故로 見賢能者則詒之非難也요 見勤篤者則役之亦易也라
- 66) 獨行篇. 鄙者一身이 雖處甚賤이나 而其心則富貴常如在目前也하고 儒者一身이 雖處甚窮이나 而其心則位權常如在目前也하고 食者一身이 雖處甚貧이나 而其心則大利常如在目前也하고 薄者一身이

雖處甚困이나 而其心則大名常如在目前也니라

- 67) 獨行篇. 好善嫉惡이 人情之常也인대 而鄙者眼前에 善惡反常하고 鄙者 心身到此하니 可憐也라 貴賢賤不肖 人情之常也인대 而儒者眼前에 賢不肖反常하고 儒者 心身이 到此하니 可哀也라 厚親薄疎 人情之常也인대 而薄者眼前에 親疎反常하고 薄者 心身이 到此하니 可傷也라 用能舍否 人情之常也인대 而食者眼前에 能否反常하고 食者 心身이 到此하니 可悲也라
- 68) 獨行篇. 鄙者之心은 可謂貪狼之心也요 薄者之心은 可謂狡兔之心也요 食者之心은 可謂封豕之心也요 儒者之心은 可謂妖狐之心也니라
- 69) 獨行篇. 貪狼은 貪狼外面忠貞이나 雖則忠貞中心이 伎心이오 妖狐는 妖狐外面從容이나 雖則從容中心이 賣心이오 狡兔는 狡兔外面謙遜이나 雖則謙遜中心이 恨心이오 封豕는 封豕外而俊秀나 雖則俊秀中心이 狼心이니라
- 70) 獨行篇. 貪狼貪狼이여 愧心愧心이오 妖狐妖狐이여 作心作心이오 狡兔狡兔이여 羞心羞心이오 封豕封豕이여 慚心慚心이니라
- 71) 獨行篇. 貪狼貪狼이여 去汝賊心하고 反汝敦心이라 賊心害人하고 敦心利己니라 妖狐妖狐이여 去汝殘心하고 反汝謹心이라 殘心害人하고 謹心利己니라 狡兔狡兔이여 去汝背心하고 反汝篤心이라 背心害人하고 篤心利己니라 封豕封豕이여 去汝橫心하고 反汝信心이라 橫心害人하고 信心利己니라
- 72) 獨行篇. 警之警之라 莫允彼一箇狼하고 衆箇狼暗伏力하니 一箇狼窺戶也라 戒之戒之라 莫允彼一箇狐하고 衆箇狐暗協謀하니 一箇狐耶俞也라 慎之慎之라 莫允彼一箇兔하고 衆箇兔暗設機하니 一箇兔入腹也라 敬之敬之라 莫允彼一箇豕하고 衆箇豕暗察勢하니 一箇豕發縱也라
- 73) 獨行篇. 59. 可觀可觀이라 狼顧我門하여 伺我間隙하니 我自默然하여 狼莫能揣하고 可觀狼也라 可觀可觀이라 狐媚其室하여 請我智愚하니 我自欣然하여 狐莫能測하고 可觀狐也라 可觀可觀이라 兔經三窟하여 誘我利寶하니 我自浩然하여 兔無施巧하고 可觀兔也라 可觀可觀이라 豕攻百道하여 察我方便하니 我自悠然하여 豕無施圖하고 可觀豕也니라

## ABSTRACT

### The study on Bi-Bak-Tam-Ra'Ja in Dokhaengpyun

Duk-Young Yoon, Byung-Hee Ko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Seoul, Korea*

Donguisusaebowon, Kogchigo are written by Dong-Mu. Dokhaengpyun of the Kogchigo has philosophy of Dong-Mu about Gi-In. In order to understand constitutional medicine of Dong-Mu,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Bi-Bak-Tam-Ra'Ja (four types of man) in Dokhaengpyu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In Dokhaengpyun, it is defined that In-Eui-Ye-Ji - the nature of human - as In-Ja, Eui-Ja, Ye-Ja, Ji-Ja. This attribute is composed of Chung-Sin-Ip-Yong. We can know that this concept, that is Chung-Sin-Yeum-Hae'Ja, is relative to the Bi-Bak-Tam-Ra'Ja.
2. We can think and infer the relation of Sabujisim of Myeng-Ja and Bi-Bak-Tam-Ra'Ja from Bi-Bak-Tam-Ra'Bu that is attribute of In-Eui-Ye-Ji'Ja. Bi-Bak-Tam-Ra'Ja can approach the behavior of Chung-Sin-Yeum-Hae'Ja, if they heard the attitude of YouHaHye and BaekYi which they have attribute of In-Eui-Ye-Ji'Ja.
3. They explained that Bi-Bak-Tam-Ra-Jisim is quoted from SaBuJiSim of Daehak. Thinking that Bi-Bak-Tam-Ra-Jisim of Dokhaengpyun and SaBuJiSim of YuRiak, we know that there is no rule. So, it is difficult that we can infer the Simyok and make some pattern.
4. The relationship of Bi-Bak-Tam-Ra'Ja and In-Eui-Ye-Ji are different from the relationship of Dokhaengpyun, Sadanron, In-Eui-Ye-Ji of YuRiak and Bi-Bak-Tam-Ra'Ja. If we regard the In-Eui-Ye-Ji Sadan as the nature of human, many attitude can be possible and it may be different that apply a Sadan to the proper time and environment. Therefore, we have to be accepted change, as applying method than fixing idea.